식당 대학생 마트 대학생

(롬13:8~10)

8. ○피차 사랑의 빚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9.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네 이웃을 네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10.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 중심으로 <식당 대학생 마트 대학생>이라는 제목의 하나님말씀 증거 합니다.

뉴스에서 한번 봤는데, 강릉을 한국의 피서 1번지라고 일컫더라고요.
피서 1번지라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여름이 다가올 때마다 나타나는 또렷한 현상들 중에 기억나는 게 한 가지 있습니다.
6월 말부터 8월 초까지 피서지 강릉의 대중적인 식당인 두부집이라든지 막국수 집들, 여기서 나타나는 특징이 있는데, 그것은 그런 식당에서 아르바이트 하는 대학생들이 굉장히 많이 보입니다.
어떤 막국수 집에 가서는 제가 한번 세어봤는데 11명 정도까지 셌어요, 더 있을 수도 있겠죠.
이렇게 유명한 대중적인 식당에서 아르바이트 하는 대학생의 숫자가 부쩍 늘어납니다.
또 한 가지 이 시기의 대형마트에는 가족단위로 쇼핑하는 사람들로 북적북적 합니다.
다들 즐거운 모습이지요.
요즘은 펜션이나 리조트 같은 데를 빌려서 강릉 안에 있는 마트에서 장을 봐서 해먹으면서 피서를 지내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가족단위의 피서객들이 쇼핑을 하러 오는 거죠.

그러다가, 8월 중순이 되면 또 다른 모습이 벌어집니다.
식당에는 그 많던 아르바이트 학생들이 싹 사라져서 단 한 사람도 찾아볼 수가 없이 맨~ 아줌마들이 모두 홀에서 서빙을 하게 되고, 마트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하면 젊은 대학생들이 삼삼오오 짝을 지어서 왁자지껄 떠들면서 온 마트 안에 그런 젊은이 그룹들이 가득 차게

됩니다.
장을 보는 카트에 산더미 같이 쌓아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6월 말부터 8월 초까지 식당에서 아르바이트 하는 대학생들의 모습과, 8월 중순이 되면 식당에서 일하던 아르바이트생들이 싹 사라지고 대형마트 안에 대학생들이 복작거리는 현상을 조합해보면, 이런 것 같아요.
6월 말부터 8월 초까지 대학생들이 열심히 아르바이트를 합니다, 다음 학기 등록금과 등등 필요한 것을 위해서.
그러고 나면 여름 내내 아르바이트 하느라 놀지를 못했다는 말입니다, 근데 9월 초에는 개학을 하니까, 그 8월 중순부터 9월 초까지 사이에 그동안 아르바이트 해서 번 돈 중에 필요한 돈 제해놓고 나머지를 가지고 실컷 놀겠다고 늦게 피서를 오는 겁니다.

이런 대학생들의 여름 동안 강릉에서 보여 질 수 있는 두 가지 모습 속에 오늘 본문을 이해하는 데에 아주 유익한 도움을 주는 비유가 들어있다는 얘깁니다.

오늘 본문 8절에 '피차 사랑의 빚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말라'고 언급합니다.
다시 말해서 이 얘기는, 내가 이 세상에서 어떤 사람을 만나든지, 가정에서는 가족을 만나고, 마을에서는 이웃을 만나고, 회사에서는 직장동료를 만나고, 이렇게 어떤 사람을 만나든지 그 사람들에게 무조건 사랑을 줄 일이지, 그 사람들로부터 무엇인가를 받아낼 생각은 눈곱만치도 하지 말라는 뜻이 들어있다는 겁니다.
'피차 사랑의 빚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말라'
이 말의 뜻이 그렇다는 거예요.
내가 사람으로서 사람을 만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게 아내가 되든지 남편이 되든지 자식이 되든지 이웃이 되든지, 김 집사님, 박 장로님, 목사님, 그 누구든지 간에 하여간 내가 사람을 만난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무조건 줄 생각만 하라 이겁니다.
그 사람들로부터 받을 생각을 하면 안 된다 이거에요.
이게 율법을 완성하는 길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율법을 지키려고 우리의 행위를 믿음보다 앞세우지 않습니다.
믿음의 결과로 율법을 지키는 행위에 도달하게 됩니다.
근데 그렇게 도달하게 되는 행위의 완성이 이웃에 대한 사랑인데, 그 사랑 안에서는 어떤 사람을 만나든지 내 마음 자체가 그 누구에게도 무엇인가를 받을 것을 생각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줄 생각만 하게 된다는 거예요.

말씀드렸던 식당 홀에서 서빙 하는 아르바이트 대학생과 대형마트에서 장을 보고 있는 대학생들과 비교해보자면, 마트에서 장을 보고 있는 대학생들처럼 내가 먹겠다고 장을 봐서 먹고 싶은 것을 고르는 그러한 마음가짐은 사람을 만나는 동안에 싹 제거해버려야 된다 이겁니다.
오직 식당 홀에서 서빙 하는 아르바이트생처럼 관심은 어떻게 하면 이 손님이 먹을 것을 편안하고 기쁘게 먹게 할 것인가만 신경을 쓰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살 동안에 어쩔 수 없이 사람을 만나게 되는데, 사람을 만날 때 내가 가져야 될 마음가짐은 이렇게 식당 홀에서 아르바이트하는 대학생의 마음가짐처럼 하라는 거예요.
마트에서 내가 먹을 것을 찾는 대학생의 마음으로는 사랑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얘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일단 예수님을 믿게 되면 운명적으로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 하면, 웨이터나 웨이트리스처럼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손님과 대화를 할 때 웨이터는 그 손님이 내게 무엇을 줄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오직 그 손님이 이 식당에서 먹고 있는 동안 내가 어떻게 좋은 것을 줄 수 있을 것인가만 생각하게 되는데,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이 바로 이런 모습이어야 된다는 얘기에요.
내가 만나는 상대방의 필요만이 내 마음의 관심이 돼야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이웃 사랑이고 이것이 바로 사랑의 빚 이외에 어떤 빚도 지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빚이니까 갚아야 되는 것이고 무얼 갚는가 하면 사랑을 갚아야 하는 거예요.

자, 어떻게 하면 이렇게 나 자신의 필요는 관심 밖으로 밀려나고 오직 내 이웃만이 관심의 대상이 되는 사랑의 마음상태가 될 수 있을까요?
마음상태가 그렇게 돼야 사랑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하면 이 사람에게서 무엇을 얻을 것인가를 생각하면서 사랑한다고 할 때, 이게 외식이 돼버리고 가증스러운 가짜 사랑이 돼버리고, 그리고 이곳은 사랑이 아닌 투자가 돼버립니다.
내가 지금 주니까 네가 언젠가 돌려줄 것이다 하고 예상하는 투자가 되는 것이지 사랑이 아니죠.
그러면 어떻게 식당 홀에서 아르바이트 하는 대학생의 모습으로 살 수 있을까요?
또 사람들을 만날 때 나는 어떻게 나 자신이 먹어야만 한다는 이 필요를 채우기 위해 대형마트에서 장을 보고 있는 대학생의 모습을 피할 수 있을까요?

자, 본문에서 말하는 사람 사랑은 분명합니다.
우리가 아르바이트 하는 대학생의 모습, 웨이터, 웨이트리스의 모습으로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어디서 우리의 배를 채울 수 있습니까?

우리도 채워야 되는 거예요, 우리 마음의 빈 공간을 채워야만 되는 겁니다.
이것은 운명적인 것이고 죄악도 아니에요.
그러나 사람을 만날 때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애인을 만날 때 내가 채워지는 것이고, 아내와 남편이 배우자로 살아갈 때 서로가 서로에게 채워지는 것이고, 내가 또한 아내를 통해 채워짐이 마땅하지 않습니까?
자식을 기르면서 자식으로 내 마음이 기쁨과 보람으로 채워지는 게 당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채워짐을 기대하지 말라는 겁니다.
좀 미리 결론을 내리면, 채워짐을 기대하면서 자식을 키우잖아요? 그게 내 자식에게 악을 행하는 게 된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10절에서 읽은 것처럼.

어떻게 아르바이트 하는 대학생처럼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사랑을 주기만 하면서 살 수 있을 것인가 하는 문제는, 어떻게 대형마트에서 내가 먹을 것을 장보는 대학생들처럼 그런 모습이 충족되어질 수 있을까와 유기적으로 관계가 돼있다는 겁니다.
내 마음이 채워지지 않고 내 마음이 비어있는 상태로서 사람을 만나면, 아무리 그 사람의 관심만을 위해서 사랑을 주려고 해도 결과적으로 보면 내 빈 마음을 채우기 위한 말과 행동으로 바뀌어버리게 됩니다, 그건 누구나 어쩔 수 없는 거예요.
베드로도 요한도 야고보도 사도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마음이 채워지지 않고 사람을 대하면 절대 그 사람에게 필요한 것만을 줄 수 있는 마음상태가 되지 않아요.
내 배가 부르고 나야 다른 사람에게 줄 수 있게 되는데, 어떻게 내 배가 부릅니까?
오직 십자가 예수님에 대한 믿음으로부터만 우리는 우리 마음의 빈 공간을 채울 수 있습니다.
이 말은 우리의 믿음이 활성화되고 있는 동안에만 우리는 이웃을 사랑할 수가 있다는 얘깁니다.

그러므로 오늘의 사랑에 관한 주제 본문도 궁극적으로는 믿음에 관한 이야기를 연장하고 있는 겁니다. 믿음이 주제로 이 속에 깔려있는 겁니다.
믿음이 활성화되고 있는 동안에만 우리는 진정한 의미에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뜻에서의 이웃에 대한 사랑을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또 달리 말하면, 오직 믿음이 활성화되고 있는 동안에만 마트에서의 대학생의 모습이 우리 마음에서 이루어지고 우리 마음이 배부르게 돼서 내가 필요한 것을 다 얻게 돼서 그 뒤로는 아르바이트 대학생의 모습으로 오직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사랑을 줄 수 있기 위한 준비가 될 수 있다는 얘깁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에 대한 믿음 안에서 열손가락에 가락지를 낀 논개가 왜장을 껴안듯 우리는 십자가의 주님을 껴안습니다.
이럴 때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에 대해 미리 죽는 겁니다.
우리가 만나게 되는 사람에 대한 판단이 죽습니다, 좋고 나쁨에 대한 판단이 죽어요, 싫어하는 것도 죽고 그 사람을 좋아하는 마음도 죽습니다.
사람에 대한 칭찬도 죽고 원망도 죽습니다.
그 사람에게 무엇인가를 바라는 바람도 죽습니다.
오직 마음은 예수님 따라서 승천하게 됩니다.
예수님과 함께 죽었기 때문에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 부활하고 승천하신 예수님과 함께 승천하게 되어 하나님께로 마음이 옮겨지게 됩니다.
이 모든 일을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죽으심과 연합할 때 성령님께서 내 마음에 이루어주십니다.

이렇게 해서 하늘 따라 올라간 내 마음이 성령님의 역사를 통하여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내 마음에 보이는 것처럼 느껴지게 되고, 만져지지 않는 하나님이 만져지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오직 십자가의 주님과 연합하면 이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십자가의 주님이 새 언약을 담고 있기 때문에, 약속이 주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될 때 이 땅에서는 이유가 없는 만족과 평강과 기쁨이 내 마음속에 생기게 됩니다.
이게 바로 십자가의 주님을 열손가락 가락지로 껴안고 기도하면서 참고 기다릴 때에 일어나는 일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이 땅에서 찾아볼 수 없는 그 평강과 기쁨이 내 마음속에 생겨서 내 마음의 배가 부르고 나면 그 하늘이 바로 우리 몫의 기업이 되는 겁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내 기업이 되는 거예요.
마트에서 카트에 산더미처럼 먹을 것을 사는 아르바이트가 끝난 대학생들처럼 우리의 만족과 기쁨은 오직 하늘에서 사야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나가서 사는 이 세상은 식당 홀입니다.
우리 배를 채울 것을 살 수 있는 마트는 오직 하늘뿐이라는 거예요.
그 하늘이라는 마트에 어떻게 들어갑니까?
주님 십자가를 통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활성화돼있는 동안에만 사랑할 수가 있다는 얘깁니다.

성경에 나오는 명령의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이나 하면, 기도의 결승테이프로 받아들인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즉, 명령형의 말씀들이 내 마음에서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질 때까지, 그래서 자연스럽게 행동할 수 있을 때까지 기도하는 것, 이것은 하루 동안에 안 될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 '원수를 사랑하라'라고 하는 말씀으로 기도를 할 때 5년이나 10년이 걸려서 거기에 도착하게 됩니다.
또, 당장 당장에 나타나는 원망과 사람들에 대한 불평은 그날 그날 내 기도의 결승테이프가 돼가는 거예요, 이렇게 당장 당장 나타나는 결승테이프를 완주하는 기도를 드려가면서 그 하루하루가 쌓여서 지독한 원수까지도 사랑할 수 있는 큰 마라톤의 결승테이프에 우리가 도달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드리는 이 기도가 끝나고 밖을 나가면 누구를 만나든지 그 사람에게서 내가 어떤 것도 바라지 않겠다는 마음이 자연스럽게 생기고, 내게 필요한 것이 있다면 내가 마음으로 사람 만날 때마다 챙기지 않아도, 내가 그 사람을 만나 얻으려고 계획하고 의도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다~ 알아서 해주실 거라는 믿음이 생길 때까지 기도한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이웃 사랑이라는 명령 앞에서 그 명령을 기도라는 달리기의 결승테이프로 삼을 때 나타나는 마음가짐이라는 거예요.

이처럼 이웃 사랑은 내 마음이 하나님으로부터 다 차서, 그러니까 내 배를 채울 것을 구할 수 있는 장소는 이 땅이 아니라는 얘깁니다.
이게 바로 믿음이에요.
그래서 주님 십자가 붙잡고 기도하는 동안에 오직 하늘로부터만 내 배를 채울 수 있어서, 내게 필요한 것을 사는 마트는 하늘이라고 믿으며 사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세상 삶은 가정으로부터 시작해서 다른 사람을 만나는 모든 삶의 현장은 다~ 식당 홀이며, 식당 홀에서 나는 아르바이트하는 대학생이고, 웨이터고, 웨이트리스다.
이것이 바로 십자가 예수님을 믿고 사는 사람들이 갖게 되는 자아의식이라는 얘깁니다.
내 삶의 현장을 이루는 이 세상이라고 하는 식당의 주인이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그 식당주인이 손님들에게 내가 어떻게 행해야 하는가를 교육합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만나는 이웃에 대한 사랑의 내용이 결정된다는 거예요.
아르바이트 학생들을 모아놓고 주인이 이야기합니다.
손님이 오면 먼저 '어서 오세요' 하고 인사를 한 뒤, 물을 갖다 드려라.
그리고 혹시 컵을 갖고 갈 때 그 컵에 이물질이 묻어있지 않은지 확인해라.
손님이 메뉴를 결정하는데 오래 걸리더라도, 아무리 바쁜 상황이라도 끝까지 기다려야지 재촉하거나 불쾌한 내색을 하지 말아라.
이런 모든 것들을 가르침으로써 손님에게 그대로 행합니다, 그리고 손님이 자기에게 어떻게 할 것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바라지 않습니다.

마트에서 카트에 네다섯 명이 몰려다니면서 여자애들이고 남자애들이고 거기에 담는 물건을 보면 기가 막혀요.
도대체 며칠 동안 머무는데 저렇게 많이 사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돼지고기 삼겹살이 2700원 3000원 할 때가 있었어요, 여름 동안에.
그런 삼겹살을 돼지처럼 많이 사고, 라면이다 맥주다 수박이다, 하여간 마트 안을 다 휩쓸어 버립니다.
그런 아이들이 아르바이트 하면서 식당 홀에서 일할 때 보면, 어쩌면 그렇게 예의바르고 점잖고 자신을 잊어버리고 오직 손님만을 생각할 수 있는지 대견스럽기 짝이 없어요.
이게 같은 사람일 수가 없어요, 그렇게 까불고 떠들고 좋아라 하며 자기 먹겠다고 다~ 담고 있는 이 모습과 비교하면 딴 사람입니다.

우리도 그런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마트에서 장보는 대학생들처럼 있는 대로 배가 불러야 됩니다.
하나님을 정말 미친 듯이 많이 먹는 거예요, 성령님을 미친 듯이 많이 먹는 거예요.
이 모든 먹을 수 있는 약속, 우리가 이것을 살 수 있는 쿠폰이 뭐냐 하면, 주님의 십자가에서 매달려 있기만 하면 돼요.
세상에 대해서 죽고 하늘을 향해서 기다리고 있으면 되는 거예요.
시간을 들이세요, 시간을 들이면 채워집니다.
그래서 미친 듯이 하늘을 먹고 하나님을 먹은 다음에 이 세상에 나갈 때는 아르바이트하는 대학생이 딱 돼버리는 겁니다.
완전히 딴 사람이 되는 거예요.
세상 살다가 갑자기 돈이 안 벌려서 배가 고프잖아요, 그러면 그 즉시 어디 차 안에 가서라도 기도하세요.
내가 배를 채울 수 있는 곳은 이 세상이 아닙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내게 필요한 것이 있다면 모두 하나님이 채워주실 것이고, 나는 하나도 바라지 않아도, 사장님의 마음을 움직여서, 친구의 마음을 움직여서, 심지어는 길 가는 사람의 마음을 움직여서라도 당장 필요하다면 채워주실 것이에요.
기도하다 보면 이게 믿어지는 겁니다.

아르바이트하는 대학생이 식당 홀에서 음식을 내놓다가 먹음직스럽고 내 배가 고프다고 해서 그걸 집어먹는 학생은 없어요, 아무리 철없는 학생이라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사람에게서 무얼 요구하는 것은 철이 없는 사람입니다.

직장에서 사장님에게 무언가 바라는 것은 손님상에 올려 져 있는 음식을 내가 먹는 것과 똑같은 거라 이겁니다.
우리는 사람에게서 무엇을 얻겠다는 마음을 가질 필요가 없습니다.
오직 우리의 대형마트 되시는 천국과 하나님으로부터 우리 마음의 만족을 위한 것은 다~ 구입할 것이에요.
하여간 내 배가 고파서 다른 사람에게서 무언가 얻기를 원하는 마음이 생기면, 얼른 대형마트이신 천국으로 향하는 겁니다.
주님의 십자가 붙잡고 그 사람에 대해서 죽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떡하든지 우리의 배는 하늘로부터 채워야 됩니다.

어떻게 하늘을 향해서 우리 마음이 우리의 입을 벌릴 수 있습니까?
주님의 십자가에서 세상에 대해 죽고 사람에 대해 죽음으로써 가능하다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하늘로 배 부르는 시간을 갖고, 이 세상에서 더 이상 필요한 것이 없다는 그런 마음이 생겨서 누구에게도 요구하지 않겠다는 마음으로 세상을 나가 살 때, 날개를 달고 하늘을 나는 새와 같은 그런 자유함과 삶의 유쾌함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을 경험할 수 있을 거예요.
우리 마음의 괴로움은 절반 이상이 다 만나는 사람에게서 내게 필요한 무엇인가를 얻어내려는 마음에서 생겨나요,
거지가 되고 종이 되고 비굴해지고 비겁해지고 위선자가 되느라고 그렇게 삶이 유쾌하지 않은 겁니다.

온전히 하늘 마트로만 내 배가 채워지고 이 세상 누구를 만나든 다, 식당에서 아르바이트하는 학생의 모습이 될 때 하늘로부터 주어지는 유쾌함과 즐거움의 삶이 진정으로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아버지, 주님의 십자가에서 주님과 연합하고 기도함을 통하여, 나의 은밀한 마트인 하늘로부터 내 배를 채울 수 있는 모든 것을 구입하게 하시고, 이 세상은 어디에서 살게 되든지 식당 홀의 웨이터가 되고 웨이트리스가 되어서 살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